

완벽한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 절차와 주의사항

1. 서 론

1996년 말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돈농가는 질병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TGE와 PED로 시작하여 PRRS와 오제스키병 확산이 두려움을 주고 있다.

가까운 대만의 구제역 발생은 또 하나의 고민거리로 생겨나 언제 국내로 들어올지 모를 판이다. 우리나라의 양돈 현실로 보아 반드시 구제역이 상륙할 것이라 추측되며,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내농장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질병에 감염되면 단순히 약품비가 증가되는 것에

서 끝나지 않고 돼지의 폐사와 비육성적을 저하시키고, 양돈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위생문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철저한 소독에 따른 차단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본 론

설사를 비롯한 호흡기장애 등이 골칫거리로 상재화된 농장에서는 백신접종 관리와 더불어 돈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방법이 무엇보다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관리가 지속적인 농장만이 질병의 공포에서



조상욱 원장
(중앙동물병원)

벗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질병발생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환경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여기에서는 임신사부터 분만사의 소독방법과 외부규제에 따른 차단방역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 임신사 소독

1) 방법

가) 폐놀 계통의 소

독약 200배액 발판소독조를 설치한다.

나) 돈분수거 리어커가 있을 시 바퀴가 충분히 잠기도록 입구에 설치한다.

다) 임신돈의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충분히 젖도록 분사(암모늄계통 400배액)

라) 천정의 거미줄을 비롯하여 스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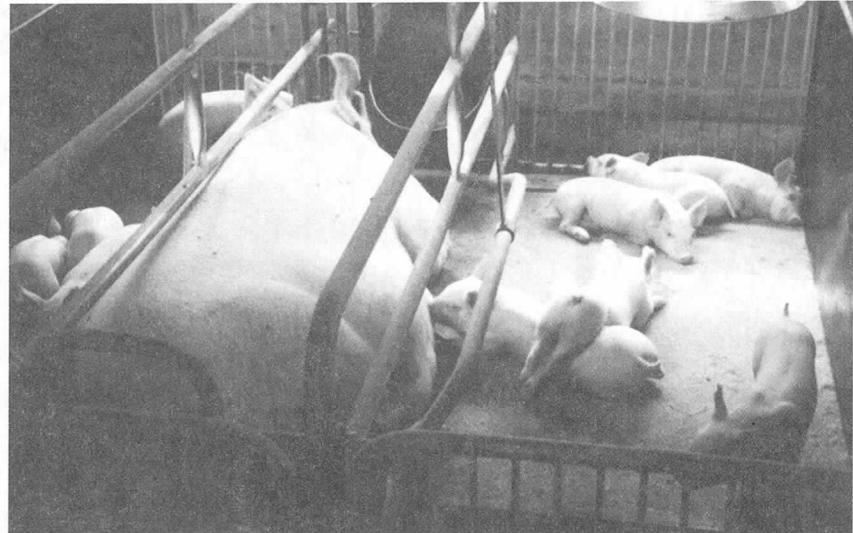
2) 주의사항

가) 돈체소독시 폐놀 계통의 자극성 소독약은 피한다.

나) 분무소독시 가급적 사료통이 비어 있을 때 실시하고 돈분을 수거한 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 돼지 귀속에 소독약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한다.

라) 돈체 소독약은 내성관계를 고려하여 단일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분만사 소독

1) 모돈 입주전 돈방 소독

임신사에서 임신돈들이 분만하려 입주하기 전 분만돈들로부터 오염된 돈사를 수세, 소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이를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 방법

가) 돈분과 먼지를 완전히 물로 닦아낸다.

나) 보온통을 비롯한 모돈급이기 자돈급이기를 밖으로 끌어내 완전히 소독한다.

다) 돈분제거 → 2% 가성소다 살포 → 건조 → 수세 → 4% 생석회 도포 → 건조 → 깔짚투여

라) 입주시 모돈은 소독약으로 약욕 후 분만사에 입식한다.

마) 임신돈은 최소의 스트레스로 이동시켜 1주일 전에 분만틀에 입식시킨다.

2) 입주시 관리

입주시 돼지를 그냥 이동시키기 보다는 돈체소독을 하여 입주시킨다. 임신사에서 오염되었던 돈체를 깨끗이 씻어내고 분만사에 입주하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자돈에 대해 감염의 기회를 줄이고 또한 생석회를 도포한 후 청결해진 분만틀에 다시금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만사의 올인, 올아웃 방식과 더불어 하여야 하며 가령 실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철저히 소독 후 입식하는 형태를 유지해야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 주의사항

가) 생석회가 완전히 마른 후 입식해야 한다.(유방이나 외음부 화상이 우려됨)

나) 입주후 돈부에 의한 재오염이 없도록 돈분제거에 신경 쓰도록 한다.

다. 외부 차단방역

차단방역의 기본은 외부에서의 질병 침입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농장에 들어오는 사람, 돼지, 사료, 기구, 출하돈, 돈분 등의 처리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1) 외부 차량(사료차)의 차단방역

지역단위로 공통의 질병이 시간차를 두고 발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차단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방역의식이 결여된 농장에서 다발하고 있다. 다른 농장에 출입한 차량이나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어떤 경우에도 농장 내 돈사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가) 별크차는 울타리 밖에서 사료빈으로 사료를 넣도록 한다.

나) 지대사료는 번거로워 소독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다) 사료차는 다른 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곧바로 농장으로 오도록 한다.

라) 비육돈 출하시 출하차는 출하대에서만 있게 하고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마) 출입문, 출하대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해 둔다.

2) 사람 출입에 대한 차단방역
농장직원 이외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외부인이 농장내에 출입할때는 농장에서 준비한 방역복과 장화를 갈아입고 출입해야 한다. 농장안에서 사용하는 작업복은 농장 외에서 사용하는 옷과 구별해서 입도록 한다.

가) 특별히 외부 출입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방역복을 준

질병의 근본적 감염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외부인이 돈사내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특히 농장간 출입이 잦은 돼지구매업자와 차량, 돈분차량, 견학인, 친척 등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농장내 출입시 손, 신발, 옷 등을 소독하며 방역복으로 갈아 입하고 차량을 철저히 소독한다. 일반농가에서는 소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렵지만 조그만 분무소독기를 이용하면, 차량은 돈사를 소독하는 소독기를 이용하면 된다.

비해 두고 한번 착용시마다 세탁과 소독을 거치도록 한다.

나) 직원의 경우 타농장이나 도축장을 출입할 경우 외부에서 샤워를 한 후 다음날 농장 출입을 한다.

3) 도입돈의 차단방역

가)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방역프로그램에 의거하

여 실시되는 종돈장 한곳에서 만 구입하여 여러 세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나) 도입한 돼지는 최소한 1주일동안 격리하여 질병유무를 관찰한 후 이상이 없는 개체만을 돈군에 편성시킨다.

다) 후보돈의 능력은 물론 도입할 농장의 질병 오염상태, 도입돈의 항체보유 상황을 검사한 다음 선발한다.

라) 오제스키 항체 음성 농장에서 도입한다.

마) 이상돈은 즉시 도태하도록 하고 그 주변을 철저히 소독을 한다.

바) 이상이 없으면 돈체 소독을 철저히 한 후 후보 사로 반입한다.

4) 출하시 차단방역

가) 출하차량은 농장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나) 한번 출하차에 상차한 돼지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농장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다) 농장 관리자는 출하차 위로 승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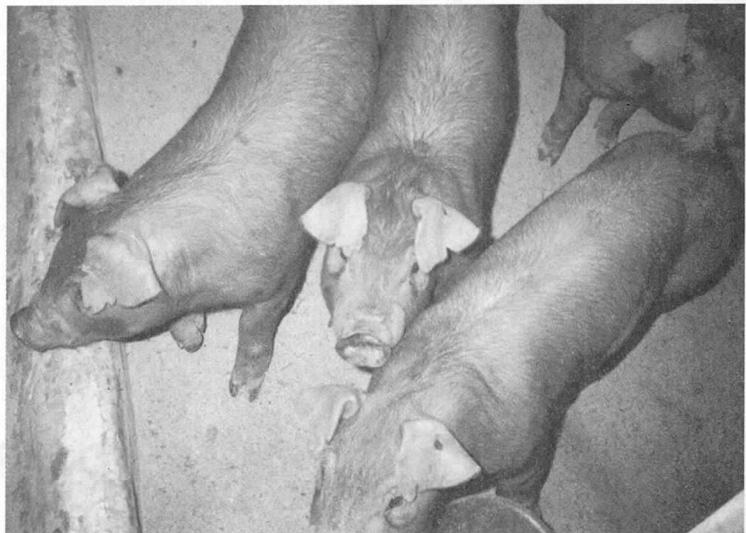
라) 출하가 끝난 후에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소독을 실시한다.

마) 전 두수를 출하하고 운반자측이 출하대 외부를 소독 한다.

바) 그 후에 농장내 직원이 출하대 및 그 주변, 출하용 기구를 소독한다.

3. 맷는말

질병의 근본적 감염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외부인이 돈사내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특히 농장간 출입이 잦은 돼지구매업자와 차량, 돈분차량, 견학인, 친척 등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농장내 출입시 손, 신발, 옷 등을 소독하며 방역복으로 갈아 입히고 차량을 철저히 소독한다. 일반 농가에서는 소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렵지만 조그만 분무소독기를 이용하며, 차량은 돈사를 소독하는 소독기를 이용하면 된다. 돈사 출입구마다 최후 방어선인 발판 소독조를 반드시 설치하여 소독약을 매일 교환한 후 소독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 사람이 출입시 소독약이 냄새가 나고 축축하다고 하여 살포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된다. 누구든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소



독절차를 수용하게 하여야 한다.

농장 내·외부에는 많은 쥐가 서식하게 마련인데 차단방역의 결림돌이 되므로 반드시 잡도록 한다. 쥐는 생활환경이 크고 여러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이므로 구서대책이 필요하며 농장내에서 기르는 개 역시 방사를 하지말고 반드시 뚝이 키우도록 하고, 접근하는 개가 없도록 주위를 울타리로 쌓아 막도록 한다.

유행성 질병이 내농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돼지를 아끼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일한 마음으로 기초관리와 차단방역을 소홀하기 쉬운데 이는 전염성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절대로 소홀하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으로 건강한 농장을 만드는데 노력하자. **養豚**

본지 캠페인

중금속 해독효과 입증된 돼지고기